새 세기 사회주의꾸바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성원의 강화

민 영 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는 사회주의나라들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이 단결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국제주의적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157폐지)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혁명승리후 수십년 간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가는 꾸바인 민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왔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꾸바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새 세기 꾸바인민을 지지성원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무 엇보다먼저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꾸바 인민에 대한 정치적지지성원이 날로 강화 되고있는것이다.

우선 사회주의나라들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이 여러 계기를 통해 꾸바인민이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는데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재 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2005년)과 군사대 표단(2010년)의 꾸바방문을 통하여 꾸바 인민의 반미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 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 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합 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미제와 당당히 맞서 사회주 의진지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는 꾸 바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있으 며 두 나라사이의 호상래왕과 교류와 협력, 성명 등을 통하여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웰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꾸 바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 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나라들이 사회주의꾸바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2004년 7월 사회주의를 지향해나가고있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미제의 반꾸바정책을 폭로규탄하면서 미제가 꾸바와의 관계를 끊을것을 강요하지만 오히려 꾸바와의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2013년 1월에 진행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수뇌자회의에서는 성원 국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까스뜨로가 이 공동체의 새 의장으로 선출되였다. 이기구는 2011년에 창설을 선포한 후 그때까지 33개의 지역나라들을 포함한 기구로 강화되였다. 주목되는것은 이 회의에 미국이 배제된것이다. 라울 까스뜨로의 의장선출과 미국의 배제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미제의 지배적지위가 완전히 허물어졌으며이 지역내에서 꾸바를 고립시키려던 시도 역시 파란을 면치 못했다는것을 뚜렷이보여주었다.

미제의 반꾸바책동에 강경히 맞서 꾸바 인민의 사회주의위업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지역인민들의 투쟁에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알바(아메리 카를 위한 볼리바르대안)의 창설과 그 활 동이다.

2005년에 꾸바와 베네수엘라가 창설한

알바는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정치, 경제 적통합을 다그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데서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뻬루, 볼 리비아, 에꽈도르 등 지역의 여러 나라들 을 가입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적협조를 강 화해나가고있는 알바의 존재는 라틴아메 리카지역에서 꾸바를 중심으로 하는 반미 자주화투쟁이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음을 뚜 렷이 보여주는것으로서 미제의 반꾸바책 동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의 진보적인민들 도 사회주의꾸바와의 국제적련대성을 강 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2004년 4월 12일 아바나에서 열린 남 수뇌자회의는 미제의 책동을 물리치고 꾸 바와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서 획 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122개 나 라의 정부수반, 외무상들로 구성된 대표들 과 30여개의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한 회 의에서는 미국의 대꾸바금수조치해제를 요 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함으로써 꾸바와의 친 선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확고한 의 지를 선언하였다.

2013년 1월 칠레에서는 제1차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국가공동체-유럽동맹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6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부대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미제의 반꾸바봉쇄책동에 맞서 싸우는 꾸바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보내였으며 꾸바와의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중요한 정치 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 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미국에 불법감금되여있는 애국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꾸바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2005년에 들어와 꾸바정부는 미국에 억류되여있는 5명의 꾸바애국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운동에 세계인민들이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따라 한해동안 약 7 000명에 달하는 세계각국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단체들이 미국에서 체포된 꾸바애국자들에 대한 재판과 판결의부당성을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2011년 6월에 꾸바가 5명의 애국자들 을 영웅으로 선포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 들에 대한 석방운동은 더욱 힘있게 벌어 졌다. 30여개 나라의 180여명 대표들이 제 3차 꾸바애국자들과의 련대성청년회의에 참가하여 최종선언을 채택하였으며 100 여개 나라에서 꾸바애국자석방을 위한 련 대성위원회를 조직하고 련대성활동을 힘 있게 벌렸다. 2012년에 꾸바애국자석방 을 위한 제8차 국제토론회가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꾸바와 아르헨띠나, 이딸리 아, 카나다, 에스빠냐, 미국 등 여러 나라 에서 온 대표들과 꾸바애국자가족들이 참 가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석방투쟁은 정 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와 민족의 위업이라고 하면서 석방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 였다.

국제적인 여론과 압력, 꾸바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미국은 할수없이 2명의 꾸바애국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2014년 3월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침략적군사기지를 철페시키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2005년 7월 25일 세계 여러 나라 정치가들과 노벨상수상자들이 아바나에서 회의를 조직하고 관따나모미해군기지철폐를 주장하는 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1년 5월 꾸바의 판따나모주에서 외국군사기지철페를 요구하는 국제토론회가진행되였다. 36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대회에서는 판따나모미해군기지의 감옥을 철페하지 않고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곳에 군사기지들을 계속 두고있는미제의 책동을 강력히 단죄규탄한 최종선언이 채택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이 투쟁은 판따나 모미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꾸바에 대 한 국가테로행위와 반정부활동, 침략전쟁 연습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강화하고있 으며 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여 지역의 정 세를 극도로 긴장격화시키고있는 미제에 대 한 커다란 타격으로 되고있다.

또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유엔무대를 통하여 사회주의꾸바를 옹호하기 위한 투 쟁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2001년 11월 27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에서는 꾸바에 대한 봉쇄조치를 끝장낼데 대한 결의가 167:3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찬성채택되였으며 2003년 11월 유엔총회 제58차회의에서도 《꾸바를 반대하여 미합중국이 실시한 경제, 재정, 무역봉쇄를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179:3으로채택됨으로써 미제에게 타격을 가하고 꾸바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을 힘있게과시하였다.

2006년 10월 27일에는 약 20개의 유엔 기구들이 미국의 꾸바봉쇄를 꾸바와의 경 제 및 사회협조를 방해하는 《일방적인 정 책》으로 배격하면서 국제규범들에 저촉되 는 꾸바에 대한 수십년간의 봉쇄를 끝장 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유엔무대를 통해 미제의 반꾸바봉쇄책동을 반대하기 위한 투 쟁을 과감하게 벌린 결과 1992년 유엔총회에서 꾸바제재반대결의가 채택된 때로부터 2012년까지 21번째로 되는 결의가 채택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새 세기 꾸바인민을 지지성원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경제분야에서 원조와 협조, 협력과 교류를 적극화하여 미제의 반꾸바책동에 심 대한 타격을 가하고 꾸바인민의 경제건설 을 고무추동하고있는것이다.

우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제의 반 꾸바경제봉쇄조치를 거부하고 꾸바에 대 한 원조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을 전개하였다.

2012년 10월 꾸바의 전반적지역에 태풍이 들이닥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베네수엘라정부는 수백t의 음식, 음료수를 비롯한 구제물자들, 복구작업에 필요한 건재들과 기계들을 군함과 비행기에 실어 꾸바에 보냈으며 로씨야정부 역시 구조대원들과 각종 인도주의지원물자들을 꾸바로 보냈다.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꾸바정부와 쌍무적협조관계를 맺고 경제적협력을 그 어 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2011년 6월 10일 베네수엘라대통령이 꾸바를 방문하여 14억US\$에 달하는 100 여건의 협조계약들을 체결하였으며 2011 년 7월 12일 꾸바-로씨야 및 로씨야-꾸 바 실업리사회 공동위원장들이 아바나에 서 쌍무관계발전을 위한 무역협정들을 체 결하였다.

2011년 10월에도 뼤루, 슬로벤스꼬, 쓰르비아, 수리남 등 많은 나라들이 꾸바와 쌍무협조관계를 강화해나갈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꾸바와 벨라루씨사이에 투자확대를 장려하고 농기계 및 가정용품생산을 현대화하는데서 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량해각서가 조인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꾸바와 경제관계를 가

지는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독단과 전횡을 부리던 미제의 지위가 허물어지고 동시에 꾸바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또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지역적통합을 적극실현함으로써 반꾸바경제봉쇄의 국제화를 노린 미제의 책동에 큰 타격을 주고 꾸바인민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6년 7월 20일-21일 아르헨띠나에서 진행된 남아메리카공동시장성원국 제30차 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압력,경제봉쇄에 대처하여 지역적인 통합과그 발전방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소집되였다.회의에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시장성원국들의 지향과 정신, 립장을 담은 최종선언이 채택되였다.

2011년 4월 29일 꾸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국가수반들이 참가한 아바나회의에서는 지역적통합과 단결, 경제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견해일치를 이룩하였다.

2012년에 볼리비아의 꼬차밤바에서 진행된 아메리카국가기구총회에서는 꾸바에 대한 미국의 비인간적인 경제 및 금융봉쇄를 즉시 해체할것과 꾸바인민의 자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할데 대하여 강조

하였다.

이와 같이 꾸바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제적원조와 협조가 강화됨으로써 꾸바의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는 새로운발전이 이룩되였으며 미제의 반꾸바봉쇄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과학기술,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사회주의꾸바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2003년 3월 24일 꾸바에서 진행된 고등교육에 관한 제2차 국제회의에서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등교육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2005년 12월 8일 꾸바-까리브공동체 수뇌자회의에서도 꾸바와 공동체성원국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고 보건, 교육, 농업 등 여러 분야의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였다. 2011년에 꾸바와 에파도르의 대학들이 전문가양성, 교육기술 및 연구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사회주의꾸바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성원은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은 가로막을수 없으며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기본방향은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